

# 필사본 『금강경언해』와 『월인석보』의 관계\*

Relationship between the Manuscript Version  
*Geumganggyeong Eonhae and Worinseokbo*

김기종 (Kim, Ki-Jong)\*\*

## ◁ 목 차 ▷

- |                                |  |
|--------------------------------|--|
| 1. 서론: 보성선원 소장 신자료 필사본 『금강경언해』 | 4. 결론: 필사본 『금강경언해』의 '釋譜詳節/月印千江之曲' 명기의 의미 |
| 2. 『금강경언해』의 編刊과 이본             | <참고문헌>                                   |
| 3. 필사본 『금강경언해』의 체재와 특징         |  |

## < 초 록 >

이 글은 신자료인 필사본 『금강경언해』를 대상으로, 그 체재 및 특징과, 卷首·末題 기재방식의 이유 내지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예비적 고찰로, 간경도감본 『금강경언해』의 編刊 및 이본의 현황을 검토하였다. 지금까지의 논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필사본 『금강경언해』는 16세기 후반에 중간본인 안심사본을 대본으로 하여, 『六祖解序』·『六祖口訣後序』와 『금강경』의 본문 및 六祖 解義의 언해문을 필사한 것이다. 이 책은 간경도감본 『금강경언해』와 달리, 각자병서와 ‘△’이 보이지 않고, 당시의 현실 한자음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이’가 모두 ‘ㅣ’로 되어 있는 특징을 보인다. 이렇듯 보성선원 소장 필사본 『금강경언해』는, 16세기 후반의 언어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과 필사본 언해본경의 유통을 보여주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그 가치 및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한편, 필사본 『금강경언해』의 ‘석보상절/월인천강지곡’·‘석보상절’ 명기는, 『금강경』의 일부 내지 전체가 현재 전하지 않는 『월인석보』에 수록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곧 이 책의 필사자는 안심사본을 저본으로 하면서도, 『금강경』이 『월인석보』에 수록되어 있음을 나타내기 위해, 권수제와 권말제에 『금강경』과 함께 『월인석보』의 권두서명을 기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월인석보』의 권두서명이 ‘월인천강지곡/석보상절’이고, 필사본에 ‘월인천강지곡’보다 ‘석보상절’의 출현 빈도가 높다는 점에서, 『금강경』을 노래한 『월인천강지곡』이 없거나 그 비중이 매우 적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無住相布施’를 강조하고 있는 『금강경』과, 권20~23에 보시 관련 이야기가 집중되어 있는 『월인석보』의 내용적 특징 및 권22·23·25의 일부 내용이 결락되어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금강경』이 수록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권차는 권22·23·25 중의 하나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는 『금강경』의 『월인석보』 수록 여부의 진위와 상관없이 不傳 『월인석보』에 대한 관심을 환기 시켰다는 점만으로도 그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要語: 금강경, 금강경언해, 월인석보, 석보상절, 월인천강지곡, 필사본, 보성선원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1-361-A00008).

\*\*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HK연구단 연구교수(wkiji@hanmail.net)

접수일: 2013년 12월 13일 최초심사일: 2013년 12월 17일 심사완료일: 2013년 12월 28일

<ABSTRACT>

This article, taking the new material, the manuscript version of *Geumganggyeong Eonhae*, examines its system and characteristic, and the reason or meaning of the method of Gwonsu Malje. Also, as a preliminary review, it takes a look at the conditions of the edition/publication and versions of *Geumganggyeong Eonhae* published by Gangyeongdogam.

The manuscript version *Geumganggyeong Eonhae* is a manual copy of the main texts of 'Yukjohaeseo', 'Huseo', and *Geumganggyeong Eonhae*s as well as Yukjo Haeui with the Ansim Copy, the second publication of *Geumganggyeong Eonhae* in the late 16<sup>th</sup> century as its finalized version. Different from the Korean version published by Gangyeongdogam, this book does not contain Gakjabyeongseo letters and △, reflects the actual sounds of Chinese characters at that time, and is characteristic as all instances of '-o' are written as 'l'. As such, the manuscript version *Geumganggyeong Eonhae* in Boseong Seonwon can be well evaluated for its values and significance in that it shows linguistic facts in the late 16<sup>th</sup> century and it is the first case that shows the distribution of manuscript version Buddhist bibles in Korean.

On the other hand, from the clear mention of Seokbosangjeol and Worincheongangjigok in the manuscript version *Geumganggyeong Eonhae*, we can conjecture that it suggests parts or all of *Geumganggyeong* is put in *Worinseokbo*. That is to say, it can be said that the copier put *Worinseokbo* together with *Geumganggyeong* in as Gwonsuje and Wonmalje with the Ansim Copy as its finalized version in order to reveal that *Geumganggyeong* is also contained in *Worinseokbo*. However, given that the head title of *Worinseokbo* is 'Woringchoengangjigok/ Seokbosangjeol' and the frequency of 'Worincheongangjigok' is higher than 'Seokbosangjeol' in the manuscript version, we can conjecture that there was no copy of 'Worincheongangjigok' in which *Geumganggyeong* was chanted or the latter's portion was very limited.

Key words: *Geumganggyeong*(金剛經), *Geumganggyeong Eonhae*(金剛經諺解),  
*Worinseokbo*(月印釋譜), Seokbosangjeol(釋譜詳節),  
Worincheongangjigok(月印千江之曲), manuscript version,  
Boseong Temple(寶成禪院)

## 1. 서론: 보성선원 소장 신자료 필사본 『금강경언해』

지난 2010년, 대구시 달서구에 위치하고 있는 보성선원에서 목조석가여래삼존 좌상의 腹藏 유물이 수습·공개된 바 있다. 보성선원의 대웅전에 봉안되어 있는 석가불·문수보살·보현보살상의 佛腹에서 각각 불상조성기와, 사리유기합·5方鏡·5寶瓶 등의 유물, 그리고 『법화경』·『人天眼目』 등의 佛典이 발견된 것이다.

이 삼존불상은 조성기에 의하면,<sup>1)</sup> 1647년(인조 25) 경남 거창의 見巖寺에서 조성된 것으로, 6.25 전쟁 이후 견암사로부터 이전해 온 것으로 추정된다.<sup>2)</sup> 견암사는 1395년(태조 4)에 삼척 삼화사·개성 관음굴과 함께 國行水陸齋를 설행하도록 지정된 사찰로,<sup>3)</sup> 연산군대까지 대표적인 水陸社로 인식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sup>4)</sup>

보성선원 소장의 삼존불상은 17세기 중엽에 정립된 새로운 불상양식을 보여주고 있으며, 작은 밥그릇 모양의 사리유기합은 조선시대 유기합의 일반적인 형태인 원통형과는 다른 희귀한 예에 속한다.<sup>5)</sup> 복장 불서의 경우는, 석가불상에서

- 1) 삼존불상의 각각에는 같은 내용의 불상조성기가 복장되어 있다. 참고로, 참여 인물 및 시주자 명단을 제외한, 석가불상의 조성기를 옮기면 다음과 같다. “불상을 조성하는 공덕이 어찌 작은 일이라 하겠습니까. 시방세계의 생사 윤회하는 육도에서 일체중생이 함께 정도로 돌아가 모든 부처님을 친견하며, 함께 바른 진리인 정법을 듣고 함께 정각을 이루기를 기원합니다. 順治 2년 6월 丁亥에 경상도 거창현 동면 우두산 견암사에서, 6월 24일에 삼존불상의 조성을 마친 후 다음(인명록)을 순차적으로 나열합니다(願我 造佛像功德以豈細事乎 十方世界 死生六道 一切衆生 同歸淨土 親見諸佛 同聞正法 同成正覺. 順治 二年 丁亥 六月日 慶尙道 居昌縣 東面 牛頭山 見岩寺 以今月二十四日 佛像三尊造畢 而後開列于后).” 문명대, “대구 보성선원 봉안 견암사 玄旭派 석가삼존불상의 도상특징과 복장 연구,” 『강좌미술사』 제35호(2010. 12), 377-379.
- 2) 송일기, “보성선원 삼존불의 복장전적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3권 제4호(2012. 12), 272.
- 3) 『세종실록지리지』 경상도 진주목 거창현의 항목에, “견암사는 가조현 우두산에 있다. 교종에 속하며, 급전이 1백 50결이다. 우리 태조가 명하여 수륙사를 만들고, 매년 춘추로 향을 내려 재를 베푼다(見庵寺 在加祚縣牛頭山. 屬教宗 給田一百五十結. 我太祖命爲水陸社 每年春秋 降香設齋).”라는 기사가 있다.
- 4) 강호선, “조선 태조 4년 국행수륙제 설행과 그 의미,” 『한국문화』 제62집(2013. 6), 226.

10종 37책, 문수보살상 6종 18책, 보현보살상에서 4종 18책이 수습되어, 총 13종 73책이라는 비교적 방대한 분량을 보이고 있다.

이들 불전은 구체적으로, 『법화경』(46책)·『원각경』(7책)·『금강경』(6책)·『六經合部』(4책)·『화엄경』(1책)·『능엄경』(1책) 등의 경전류 6종과, 『화엄경소』(1책)·『天台四教儀集解』(1책)의 주석서 2종 및 의례서인 『禮念彌陀道場懺法』(1책), 그리고 『몽산화상육도보설』(2책)·『佛祖三經』·『선가귀감』·『인천안목』(이상 각 1책) 등이 해당된다. 간기가 있는 책들에 한정해서 볼 때, 복장전적은 대체로 1395년(『인천안목』)부터 1611년(『원각경』 권3·6) 사이에 간행된 것이라 할 수 있다.<sup>6)</sup> 이들 가운데, 백지묵서본 『(周本) 화엄경』 권58과 간경도감본 『천태사교의집해』는 바로 뒤에서 언급할 2종의 『금강경언해』와 함께, 그전까지 학계에 소개된 적이 없는 유일본이다.<sup>7)</sup>

이상의 서술에 알 수 있듯, 보성선원 소재 삼존불상과 그 복장유물은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매우 크다고 하겠는데, 올해 4월에 ‘대구 보성선원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 및 복장유물’이 보물 제1801호, ‘대구 보성선원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 복장전적’은 보물 제1802호로 지정되었다.<sup>8)</sup>

한편, 삼존불상의 복장전적 중에는 한문본뿐만 아니라 언해본이 포함되어 있다. 목판본 『금강경언해』·필사본 『금강경언해』·활자본 『능엄경언해』 권5가 그것으로, 이들 언해본 중 목판본과 필사본의 『금강경언해』는 유일본 내지 희귀본에 해당한다. 전자는 간경도감본 『금강경언해』를 1565년(명종 20) 無量寺에서 복각한 판본으로, 『금강경』 본문의 持經功德分 제15~應化非眞分 제32가 수록되어 있다.<sup>9)</sup> 그동안 무량사본 『금강경언해』는 法會因由分 제1~離相寂滅分 제14를 수록하고 있는 김민영 소장의 한 책만이 전하고 있었는데, 이 책의 출현으로 비록

5) 문명대(2010), 388-389.

6) 이들 복장전적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문명대(2010), 393-421와, 송일기(2012), 273-277에 자세히 정리되어 있다.

7) 송일기(2012), 294.

8) 문화재청 홈페이지, <<http://www.cha.go.kr/newsBbz>>.

9) 무량사본을 대본으로 1575년(선조 8) 판각한 안심사본에는 『進金剛心經箋』·『翻譯廣轉事實』과 김수은·한계희 등의 발문이 실려 있지만, 이 책은 경전의 본문만이 남아 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1권 2책으로 된 무량사본의 전모를 알 수 있게 된 것이다.<sup>10)</sup>

후자의 경우는 백지에 목서로 필사된 것인데, 필사본은 『금강경언해』뿐만 아니라 언해불경 전체에 있어 이 책이 유일한 예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필사본 『금강경언해』의 卷首題와 卷末題에는 서명인 ‘금강반야바라밀경’ 외에도 다른 이름이 함께 명기되어 있어 주목을 요한다. 곧 복장전적인 관계로 앞·뒤표지가 없는 이 필사본은 ‘金剛般若波羅密經釋譜보詳상節절/ 月월 印인千천江江之지곡곡/ 六六 祖祖大대 師師 解解 序序’<sup>11)</sup>로 시작하여, 마지막 장이 ‘金剛般若波羅密經釋譜詳節’로 끝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금강경』의 본문은 ‘金剛般若波羅密經釋譜보詳상節절/ 法법 會會 因因 由由 分分 分分 第第 一 一’로 시작되고 있다. 이렇듯 이 책에 ‘석보상절’이 세 차례나 명기되어 있는 점은 특기할 만한 사례로, 이러한 사실은 『월인석보』와 『금강경』의 관계, 곧 『금강경』의 『월인석보』 수록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sup>12)</sup>

그러므로 이 글은 신자료인 필사본 『금강경언해』를 대상으로, 그 체재 및 특징과, 卷首·末題 기재방식의 이유 내지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금강경언해』의 편찬·간행 경위 및 이본의 현황을 검토한 뒤, 보성선원 소장 필사본의 특징적인 국면을 고찰할 것이다. 그리고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10) 송일기(2012), 275에서는 “필자가 새로 밝힌 자료 중 주목되는 전적은 1565년에 鴻山의 無量寺에서 개관한 『금강경』 언해본이다. 이 언해본은 1464년에 간경도감에서 간행한 판본을 저본으로 복각한 목판본으로 학계에는 소개된 적이 없으며, 또한 여타 기관에는 소장 사실이 없고 다만 개인이 1부만 소장하고 있을 정도로 매우 희귀한 자료이다.”라고만 언급하고 있다. 본고에서 무량사본과 관련하여 서술한 내용은 해당 문헌을 필자가 열람·검토한 결과인데, 신자료인 무량사본 『금강경언해』와 필사본 『금강경언해』는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불교기록문화유산아카이브(ABC) 사업단”에서 그 이미지 과일을 제공해 준 것이다. 이종수 교수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11) ‘/’ 표시는 행의 구분을 뜻한다. 곧 필사본 『금강경언해』의 1행은 ‘金剛般若波羅密經釋譜詳節’이고 ‘月印千江之曲’은 2행에, ‘六祖大師解序’는 3행에 해당한다.

12) 문명대(2010), 394의 도표 6번에서는 이 필사본 『금강경언해』에 대해, “한글과 한문이 병서된 금강경, 석보상절, 월인천강지곡이 합집된 독특한 책으로 귀중함.”이라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송일기(2012), 284에서는 이 책의 권수제 및 권말제의 기재방식에 대해, “이는 『금강경』의 언해가 세종의 유명이라는 사실로 보아 은연중에 ‘月印’과 ‘釋譜’와의 관련성을 보이고 있는 듯하나, 이러한 기재방식이 어떠한 의미에서 이와 같이 連記했는지는 알 수 없다.”라고 하였다.

필사본 『금강경언해』에 명기된 권수제 및 권말제의 의미에 대한 해명을 시도하고자 한다.

## 2. 『금강경언해』의 編刊과 이본

대승불교의 초기 경전인 『금강경』의 갖춘 이름은 『金剛般若波羅密經』이고 범어로는 Vajracchedikā-prajñā-pāramitā-sūtra이다. 『금강경』의 한역본은 현재 6종이 전하고 있는데, 최초의 漢譯인 구마라집의 번역본이 가장 널리 유통되고 있다. 『금강경』의 내용 및 사상은 六祖 慧能(638~713)의 언급대로 無相을 근본으로 삼고, 無住를 體로 삼으며, 妙有를 用으로 삼는다<sup>13)</sup>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특히 이 경전은 고정된 견해나 생각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점을 윤리적 실천의 차원으로까지 밀고 나아가는데, ‘無住相布施’의 강조가 그것이다. 無相은 大乘正宗分 제3에서, 무상에 입각한 보시바라밀은 妙行無住分 제4에서 설명하고 있다. 그 이후는 반복을 통한 강조와 『금강경』 및 무주상보시의 공덕을 찬탄함으로써 실천을 권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sup>14)</sup>

우리나라에 있어 『금강경』은 삼국시대 불교 수용의 초기에 전래되었고, 고려 중기의 보조국사 지눌이 불교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반드시 이 경전을 읽게 한 후로 크게 유통되었다.<sup>15)</sup> 조선 태조대에는 대궐 안에서 승도들에게 여러 차례 『금강경』을 독송하게 하였고,<sup>16)</sup> 1461년(세조 7) 제정된 度僧法の 규정에는 승려가 되기 위해 반드시 외위야 하는 경전으로 『금강경』이 『반야심경』·『薩怛陁』<sup>17)</sup>와 함께 제시되어 있다.<sup>18)</sup> 또한 『금강경』은 조선 중기 이후 정착된 승려들

13) 혜능, 『金剛般若波羅密經序』, 『金剛般若波羅密經解義』 권1(『卍新纂大日本續藏經』 권24, 517). “夫金剛經者 無相爲宗 無住爲體 妙有爲用.”

14) 정승석 편저, 『고려대장경해제』 권1 (서울: 고려대장경연구소, 1998), 79.

15) 정재영, 김성주, “영광 불갑사 복장전적에 대한 국어학적 연구,” 『서지학보』 제35호(2010. 6), 215.

16) 『태조실록』 권9, 5년(1396) 4월 29일 ; 『태조실록』 권10, 5년 10월 11일 ; 『태조실록』 권12, 6년 11월 7일.

의 강원 이력 과정 중 四教科의 한 과목으로 포함되었으며,<sup>19)</sup> 현재는 대한불교조계종의 소의경전이기도 하다.

본고의 논의 대상인 『금강경언해』는 1464년(세조 10) 4월 『반야심경언해』와 함께 간경도감<sup>20)</sup>에서 간행되었다. 간경도감에서 간행한 여타의 언해불경과 마찬가지로, 『금강경언해』는 경전의 주석서를 번역한 것으로, 혜능의 『金剛般若波羅密經解義』가 그 저본이다. 구마라집 한역의 經文과 혜능의 解義에 세조가 직접 한글로 구결을 달고, 한계희가 번역하였으며, 효령대군·海超 등이 교정을 담당하였다. 이 책의 서명과 권수제는 ‘金剛般若波羅密經’, 판심제는 ‘金剛經’으로 되어 있다.<sup>21)</sup>

『금강경언해』의 간행 동기 및 목적은 이 책에 수록된 『進金剛心經箋』과 발문 및 『翻譯廣轉事實』을 통해 알 수 있다.<sup>22)</sup> 먼저, 황수신이 작성한 전문에서는, 임금이 仁으로써 정사를 펼치려면 반드시 허물어짐이 없는 진리에 의지해야 되는데, 거기에 가장 합당한 경전이 『금강경』인 관계로 이 경전을 번역하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효령대군은, 세조가 佛典 중에서 『금강경』을 가장 중히 여겼

- 17) 『능엄경』 권7에는 “南無薩怛他蘇伽多耶阿羅訶帝三藐三菩陀寫”로 시작되는 다라니가 실려 있는데, 도승 규정의 ‘살달타’는 바로 『능엄경』의 이 다라니를 가리키는 것으로 여겨진다.
- 18) 『세조실록』 권23, 7년 3월 9일. 이 도승법은 禪·敎 兩宗에서 3년마다 인재를 선발하는 選試의 규정과 함께 『경국대전』에도 수록되어 있다.
- 19) 이능화, 『조선불교통사』 하 (서울: 신문관, 1918), 568. “從前以來 朝鮮僧侶 次第講修經論 科目謂之履歷. 十戒·誦呪·般若心經·禮懺·初心文·發心文·自警文(已上 沙彌科也) 大慧書狀·高峰禪要·禪源諸詮集都序·法集別行錄卽節要(已上 四集科也) 楞嚴經·起信論·金剛般若經·圓覺經(已上 四教科也) 華嚴經·禪門拈頌·傳燈錄(已上 大教科也).”
- 20) 간경도감은 1461년(세조 7) 6월에 설치되어 1471년(성종 2) 12월에 혁파될 때까지 약 37종의 한문 불전과 9종의 언해불전을 간행하였다. 참고로, 간경도감에서 간행한 언해불전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능엄경언해』(1462)·『법화경언해』(1463)·『선종영가집언해』·『금강경언해』·『반야심경언해』·『아미타경언해』(이상 1464년)·『원각경언해』(1465)·『수심결언해』·『사범어언해』(이상 1467년).
- 21) 서명만으로는 한문본 『금강경』 및 1482년(성종 13)에 간행된 『금강경삼가해언해』와 구별이 되지 않으므로, 국어학계에서는 권수제와 판심제에 없는 ‘금강경언해’란 명칭으로 한문본 및 『금강경삼가해언해』와 구별하고 있다.
- 22) 발문과 『번역광전사실』은 현전 『금강경언해』의 판본 가운데 중간본인 안심사본에만 수록되어 있다. ‘발문’은 효령대군·海超·김수온·한계희·노사신 등 5인의 발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으며, 이 경전의 가르침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육바라밀을 닦아 彼岸에 함께 가기 위한 바람에서 『금강경언해』를 간행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혜초·김수온·노사신의 발문과 『번역광전사실』은 모두 번역 및 간행의 이유로 세종과의 관련성을 언급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들 중, 김수온의 발문에서 관련 내용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곧 “우리 聖上이 일찍이 壬午年에, 세종께서 金剛 4보살과 8금강의 뜻을 묻는 꿈을 꾸었고, 또 꿈에서 의경세자의 용모와 안색이 평소와 같음을 보았다. 그리고 중전 또한 꿈에서 세종께서 조성한 불상을 여러 보살들이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았다. 이에 두 전하가 오열하면서 『금강경』을 全譯하고자 하였다.”<sup>23)</sup>라는 전언이 그것이다.<sup>24)</sup> 이상의 내용을 통해, 『금강경』의 번역 및 간행은 세종과 관련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는데, 논의의 편의상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서술은 4장으로 미루고, 여기에서는 이러한 사실만을 지적하고자 한다.

『금강경언해』의 번역은 간경도감 간행의 다른 언해불전처럼, 원문과 그 구절을 의식한 직역이다. 먼저 원전을 大文으로 나누고 한글로 구절을 쌍행으로 단 다음에, 국한 혼용의 번역을 쌍행으로 잇따라 싣고 있다. 경문 및 육조 解義의 원문과 언해문은 ○표로 구분되어 있고, 협주의 시작과 끝에는 흑어미가 있다. 원문의 한자에는 독음 표기가 없으나 언해문의 한자에는 『동국정운』에 따른 한자음이 주기되어 있고, 언해문의 한글에만 방점이 있다. 그리고 이 책의 판식은 원간본과 중간본의 차이가 없는데, 한 면은 8행으로 되어 있고 매행의 자수와 글자 크기는 경문·解義의 원문과 언해문이 다르다. 경문은 大字로 행의 처음 위치에서 시작하는 19자이고, 육조의 해의는 中字로 경문보다 1자 내려서 시작하며, 경문과 해의의 구결 및 언해문은 小字로 되어 있다.

표기법에 있어서 『금강경언해』는 구결문과 언해문이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23) “惟我聖上 嘗於壬午之歲 夢見世宗語上 以金剛四菩薩八金剛之義 又見懿敬世子容貌顏色宛如平時 又中宮夢 世宗所成佛像諸菩薩圍繞而立 於是兩殿嗚咽 爲盡轉金剛經。”

24) 노사신의 발문 또한 “天順 六年 壬午 九月 上夢世宗論金剛經 又見懿敬世子適愜 中宮所夢大感悟 誓言大輪金剛經。”이라고 하여 세조와 중전의 꿈을 언급하고 있다. 혜초의 경우는 세조가 ‘遺囑’을 잊지 않은 까닭으로 『금강경』을 번역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번역광전사실』에서는 세조와 정희왕후가 꾸는 꿈의 내용이 보다 자세히 서술되어 있다.

구결문에서는 호격조사와 의문문의 종결어미가 각각 ‘-야’·‘-니아’로 나타남에 비해, 언해문은 ‘-여’·‘-리아’로 표기되어 있다. 또한 언해문은 各字並書를 사용하고 있지만, 구결문에는 각자병서를 전혀 볼 수 없다. 구결문의 ‘홀시’·‘홀가’·‘홀 시니’ 등은, 언해문에서는 ‘홀씨’·‘홀까’·‘홀 씨니’ 등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듯 구결문과 언해문의 표기가 다른 이유는 세조와 한계희라는 담당자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sup>25)</sup> 『금강경언해』는 『반야심경언해』와 함께 각자병서 표기가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간경도감본 언해서로, 1465년에 간행된 『원각경언해』에서 각자병서가 완전히 폐지된다.<sup>26)</sup>

『금강경언해』의 이본은 현재 6종이 전하고 있는데, 이들 판본의 서지사항을 도표로 정리하여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표 1> 『금강경언해』 이본의 서지사항<sup>27)</sup>

	판본명	간행사항	간행연도	권수	소장처	비고
1	불갑사본	원간본 (초쇄본)	1464년 (세조 10)	不分卷 1책	영광 불갑사	구결 작성자 및 역자 이름을 적은 2줄의 記名行이 있음. 『금강경』 본문과 『六祖口訣後序』만 남아 있음. 본문 중 제132장 낙장. 『후서』의 제4~7장과 제12~13장의 6장이 낙장.
2	연산조본	원간본 (후쇄본)	1495년 (연산군 1)	不分卷 1책	임형택	책의 말미에 ‘弘治八年秋八月下辭’이란 간기가 있는 學祖의 발문이 있음.
3	일사 문고본	원간본 (후쇄본)	연대미상	零本 1책	서울대 도서관	하권(제91장 이후)만 전함. 『금강경』 본문은 持經功德分 제15~應化非眞分 제32가 수록됨. 陀羅尼와 『六祖口訣後序』 있음. 『後序』의 제8장은 『六祖解序』의 제8장이 잘못 장철된 것임.

25) 정재영, “간경도감 초간본 『금강경(언해)』,” 송일기 편, 『영광 불갑사의 불교문헌』 1 (서울: 태학사, 2005), 187-189.

26) 김성주 외, “문헌 개관,” 『금강경언해』 (서울: 신구문화사, 2006), 52.

27) 이 도표는 다음의 논문들을 참조하여 작성한 것이다. 정재영(2005), 181-184; 김성주 외(2006), 33-37; 김무봉, “『금강경언해』의 번역에 관련된 몇 가지 문제,” 『한국사상과 문화』 제40집(2007. 12), 274-281.

	판본명	간행사항	간행연도	권수	소장처	비고
4	석판본	원간본 (후쇄본)	연대미상	零本 1책	동국대 도서관	상권(제90장까지)만 전함. 經文은 法會因由分 제1~離相寂滅分 제14가 수록됨. 경문 앞에 『進金剛心經箋』, 『教雕造』, 『六祖解序』 등이 있음.
5	무량사본	복각본	1565년 (명종 20)	1권 2책	김민영, 보성선원	상권은 김민영, 하권은 보성선원 소장. 상권은 『進金剛心經箋』과 법회인유분 제1~이상적멸분 제14, 하권은 持經功德分 제15~應化非眞分 제32 수록. 상권의 箋文 뒤에 “嘉靖四十四年 乙丑 五月日 淳昌地 龜岳山 無量寺 開刊”이란 간기가 있음.
6	안심사본	복각본	1575년 (선조 8)	1권 2책	동국대· 서울대 도서관	1932년 만해 한용운이 1575년에 안심사에서 간행된 중간본의 판목을 새로 판각 및 보각하여 간행한 것임. 다라니 뒤의 간기에는 “萬曆 三年 乙亥 全羅道 高山 雲梯縣 大雄山 報恩慈福 安心廣濟院 重刊 留鎮”이라고 되어 있음. 이 판본에만 발문과 『齋譯廣轉事實』이 수록되어 있음.

도표에서 제시한 이본들 외에도, 20세기 초에 목판본으로 간행된 강재희의 음역본과 번역본이 전하고 있다. 1908년 간행의 전자는 경전의 원문과 그 한자음만을 적은 것이고, 후자는 1912년에 간행된 것으로, 경문·音釋·언해문을 나란히 놓은 방식으로 되어 있다. 번역은 간경도감 언해본을 많이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sup>28)</sup>

위의 도표를 보면, 현전 『금강경언해』의 판본은 크게 원간본 계통과 중간본 계통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원간본 계통 가운데 불갑사 소장본은 『금강경언해』의 본문과 『육조구결후서』의 일부만이 전하고 있지만, 간경도감에서 간행된 초쇄본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이러한 사실은 본문 첫 장에 “御定口訣/ 嘉靖大夫仁順府尹臣韓繼喜奉 教譯”이라는 記名行을 통해 알 수 있다. 후쇄본으로 추정되는 일사문고본·석판본은 이 불갑사본의 오각 내지 오자를 수정한 것이다. 초쇄본의

28) 김성주 외(2006), 35.

‘肉眼이’(29ㄴ7) · ‘더의’(81ㄴ6) · ‘ㄱ새’(102ㄱ2) · ‘묻조오더’(105ㄱ6) · ‘엇테’(105ㄱ8) · ‘追尋’(121ㄴ3) · ‘眞相’(139ㄴ6) · ‘色性’(139ㄴ8)<sup>29)</sup> 등이, 후쇄본에서 각각 ‘肉眼의’ · ‘늑딴’ · ‘ㄱ새’ · ‘묻조오더’ · ‘엇테’ · ‘推尋’ · ‘眞常’ · ‘色聲’ 등으로 고쳐져 있다.

1495년의 후쇄본과 중간본인 안심사본의 경우는 그 編次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임형택 소장본은 ‘進金剛心經箋-教雕造-六祖解序-金剛經啓請·淨口業眞言·安土地眞言·普供養眞言·請八金剛四菩薩·發願文·云何梵·開經偈-금강경-陀羅尼-육조구결후서-跋(學祖)<sup>30)</sup>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비해 안심사본은 「후서」가 경문 뒤가 아닌 「육조해서」 뒤에 있으며, 「진금강심경전」이 경문 뒤에 있는 등 연산조본과 그 순서가 다르다. 그리고 연산조본의 「교조조」와 학조의 「발」이 없는 대신, 효령대군·한계희 등의 발문과 「번역광전사실」 및 「간행기」·「시주질」이 새로 편입되어 있다. 이상의 내용과 간경도감본 언해불전의 일반적인 편차를 참고하여 원간본 『금강경언해』의 체재 및 구성을 추정하면 다음과 같다.<sup>31)</sup>

## ■ 원간본 『금강경언해』의 체재 및 구성

- 進金剛心經箋 <1ㄱ-3ㄱ>
- 教雕造 <1ㄱ-2ㄱ>
- 金剛般若波羅密經六祖解序 <1ㄱ-9ㄱ>
- 金剛經啓請, 淨口業眞言, 安土地眞言, 普供養眞言  
請八金剛四菩薩, 發願文, 云何梵, 開經偈 <9ㄴ-11ㄱ>
- 金剛般若波羅密經 法會因由分 제1~應化非眞分 제32 <1ㄱ-152ㄴ>
- 陀羅尼(補闕眞言·般若無盡藏眞言·金剛心眞言·普回向眞言) <153ㄱ>
- 六祖口訣後序 <1ㄱ-15ㄴ>
- 跋 <1ㄱ-9ㄱ>
- 翻譯廣轉事實 <1ㄱ-4ㄴ>

29) 괄호 안에 처음 나오는 숫자는 해당 張次를, ㄱ과 ㄴ은 앞면·뒷면, 그 뒤의 숫자는 행을 가리킨다. 이후, 제시하는 장차 표시는 이와 같다.

30) 김무봉(2007), 277.

31) 김성주 외(2006), 28 ; 김무봉(2007), 282-283. 이와는 달리 정재영(2005), 186에서는 원간본의 편차를 다음과 같이 추정하고 있다. ‘진금강심경전-교조조-육조해서-금강경-발문-번역광전사실-육조구결후서’.

한편, 『금강경언해』 외에도 『금강경』의 해설서를 번역한 『금강경삼가해언해』가 현재 전하고 있다. 5권 5책의 활자본인 이 책은 1482년(성종 13) 세조비인 자성대비(정희왕후)의 명으로 內需司에서 간행되었는데, 涵虛 己和(1376~1433)의 『金剛經五家解說誼』<sup>32)</sup> 중 冶父 道川の 着語·頌과, 宗鏡의 提綱 및 함허의 說誼를 언해한 것이다. 권1의 제16장 뒷면부터 시작되는 『금강경』의 본문은 행의 첫 글자 위치부터 大字로 쓰고, 야보의 착어·송과 종경의 제강은 행의 처음에서 한 글자 내려 中字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한 함허의 설의는 두 글자 내려 한문에 구결을 달고, 언해문은 ○표를 한 뒤 쌍행으로 小字를 썼다.<sup>33)</sup> 『금강경언해』와 마찬가지로 언해문의 한자에는 동국정운식 한자음을 달았고, 언해문의 한글에만 방점이 있다. 그러나 『금강경삼가해언해』는 경문의 구결문만 제시되어 있을 뿐, 이에 대한 언해문과 육조의 해의가 없다는 점에서 『금강경언해』와 큰 차이가 있다.

이상, 간경도감 간행의 『금강경언해』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이제 간경도감본과 다른 필사본의 특징을 살펴볼 차례다.

### 3. 필사본 『금강경언해』의 체제와 특징

보성선원 소장의 필사본 『금강경언해』는 목판에 사주의 匡郭과 판심부에 상하의 大黑口 및 흑어미를 새겨 백지에 인출한 후, 邊欄의 안쪽과 판심에 붓으로 가는 黑線을 긋고, 그 안에 경문을 필사한 일종의 한글 사경으로 보인다.<sup>34)</sup> 이 책은 간경도감본 『금강경언해』를 필사한 것으로, 앞의 인용문 (1)에서 제시한 원간본의 편차 가운데 「육조해서」·「후서」와 『금강경』의 본문 및 解義의 언해문

32) 『금강경오가해설의』는 함허가 1417년(태종 17)에 편찬하고, 1457년(세조 3)에 2권 1책으로 간행되었다. 이 책은 양나라 傅大士의 贊, 당나라 慧能의 口訣(解義), 당나라 圭峯 宗密의 纂要, 송나라 冶父 道川の 頌·着語, 송나라 豫章 宗鏡의 提綱과, 이들에 대한 함허의 설의로 구성되어 있다.

33) 김영배, “금강경삼가해 해제”, 『(역주) 금강경삼가해』 1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06), 11.

34) 송일기(2012), 283.

만을 옮기고 있다. 경문과 해의의 구결문은 실려 있지 않는 것이다. 한 면은 8행으로 되어 있는데, 경문의 글자수는 매행 17자이고, 「육조해서」·「후서」와 解義는 16자이다. 전자는 행의 처음 위치에서 시작하고, 후자는 한 자를 내려서 시작하고 있다. 전자와 후자 모두 같은 글자 크기와 동일한 필체로 되어 있으며, 한자음은 주기하고 있으나 방점은 표기하고 있지 않다. 필사본 『금강경언해』의 체재 및 구성을 그 장차와 함께 보이면 아래와 같다.

### ■ 필사본 『금강경언해』의 구성<sup>35)</sup>

- 金剛般若波羅密經釋譜詳節/ 月印千江之曲 <1b1~2>
- 六祖大師解序 <1b3~10b6>
- 金剛般若波羅密經釋譜詳節 <10b7>
- 法會因由分第一 <10b8~15b7>
- 大乘正宗分第三 <24a2~32b4>
- 如理實見分第五 <39b5~43a3>
- 無得無說分第七 <52a2~56b2>
- 一相無相分第九 <61a4~68b8>
- 無爲福勝分第十一 <73a4~75b5>
- 如法受持分第十三 <78a5~84b5>
- 持經功德分第十五 <104a1~112a5>
- 究竟無我分第十七 <117b8~130b5>
- 法界通化分第十九 <136b1~137a8>
- 非說所說分第二十一 <140b4~143a8>
- 淨心行善分第二十三 <145b1~146b8>
- 化無所化分第二十五 <148b8~151b4>
- 無斷無減分第二十七 <155a4~156b5>
- 威儀寂靜分第二十九 <158a3~158b7>
- 知見不生分第三十一 <162a7~165b4>
- 金剛般若波羅密經六祖大師口訣後序 <168a6~183a8>
- 발원문 “主上殿下壽萬萬歲 王妃殿下壽齊年 太子殿下壽千秋” <183b1~3>
- 시주기 “供養布施兼 自化大施主 趙介福” <183b5>
- 金剛般若波羅密經釋譜詳節 <183b8>
- 善現啓請分第二 <15b8~24a1>
- 妙行無住分第四 <32b5~39b4>
- 正信希有分第六 <43a4~52a1>
- 依法出生分第八 <56b3~61a3>
- 莊嚴淨土分第十 <69a1~74a3>
- 尊重正教分第十二 <75b6~78a4>
- 離相寂滅分第十四 <84b6~103b8>
- 能淨業障分第十六 <112a6~117b7>
- 一體同觀分第十八 <130b6~136a8>
- 離色離相分第二十 <137b1~140b3>
- 無法可得分第二十二 <143b1~144a8>
- 福智無比分第二十四 <147a1~148b7>
- 法身非相分第二十六 <151b5~155a3>
- 不受不貪分第二十八 <156b6~158a2>
- 一合相理分第三十 <158b8~162a6>
- 應化非真分第三十二 <165b5~168a4>

35) 판심에 장차를 명시하고 있는 간경도감본과 달리, 필사본은 장차를 표시하고 있지 않다. 인용문에서 제시한 장차는 필자가 매긴 것으로, 간경도감본의 장차와 구별하기 위해 앞면은 ‘a’, 뒷면은 ‘b’로 표기하였다. ‘a’·‘b’ 뒤의 숫자는 행을 뜻한다.

필사본 『금강경언해』는 ‘권수제-육조해서(언해문)-서명-금강경 본문·解義(언해문)-후서(언해문)-발원문-시주기-권말제’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후서」 바로 다음 장에 있는 발원문은 임금과 왕비 및 태자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내용이고, 발원문에 이어 기록된 시주기는 ‘趙介福’이란 단월의 施財로 이 필사본이 조성된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머리말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이 책의 권수제에는 ‘금강경’ 외에 ‘석보상절/ 월인천강지곡’이 기재되어 있고, 서명과 권말제에서는 ‘월인천강지곡’은 생략한 채 ‘석보상절’만을 명기하고 있다. 그러나 위의 인용문에서 보듯이, 필사본 『금강경언해』에는 『월인석보』 또는 『석보상절』과 관련된 어떠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비록 경문과 解義의 구결문은 생략하고 있지만, 『금강경언해』 법회인유분 제1~응화비진분 제32의 언해문을 빠짐없이 온전하게 옮기고 있는 것이다. 85-3의 “如는 생 아니호미오” 앞에 “如來는”(98b7)이 첨가된 것을 제외하면, 시대적 변화에 따른 표기법의 차이 외에, 간경도감본 『금강경언해』에 없는 내용이 새로 추가된 예는 보이지 않는다.

필사본 『금강경언해』에 나타난 표기법상의 특징으로는 우선, 간경도감본의 각자병서와 ‘△’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간경도감본의 ‘이럴씩’·‘여회울 것’·‘-홀 제’·‘-띠니’ 등의 각자병서가 필사본에는 각각 ‘이럴시’·‘여회울 것’·‘-홀 제’·‘-디니’ 등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의 경우는 ‘므스미’·‘-흐습논’·‘처섬’·‘드사’ 등이 ‘므스미’·‘-흐습논’·‘처섬’·‘드사’ 등과 같이 모두 ‘스’로 나타나 있다.

다음으로, 필사본의 한자음은 권수제의 “금강반야바라밀경석보상절/ 월인천강지곡”에서 알 수 있듯이, 간경도감본의 동국정운식 한자음을 옮긴 것이 아니라, 당시의 현실 한자음을 반영하고 있다. 끝으로, 이 필사본에는 간경도감본의 ‘-이’가 모두 ‘ㅣ’로 바뀐 점을 지적할 수 있다. ‘菩薩ㅣ’·‘福德ㅣ’·‘몸허리ㅣ다’·‘아니ㅣ다’·‘甚히 하ㅣ다’ 등이 그 예에 해당한다. 이상에서 언급한 표기법의 특징은 필사본 제1~183장의 전체에 걸쳐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는데, 필사본 『금강경언해』는 이들 특징 외에도, 아래의 도표에서 보듯이 몇몇 글자의 표기에

있어 다른 판본과 차이를 보인다.

<표 2> 필사본과 다른 판본의 비교

張次	불갑사본	석판본	일사문고본	안심사본	필사본
5ㄴ3	도로	도로		도로	도라
7ㄴ6	브리샤미시고	브리샤미시고		브리샤미시고	브리샤미오
11ㄴ1	須승菩뽕提명여	須승菩뽕提명여		須승菩뽕提명이	須슈菩보提테
14ㄴ3	諸정菩뽕薩삼 摩망訶항薩삼이	諸정菩뽕薩삼摩 망訶항薩삼이		諸정菩뽕薩삼摩 망訶항薩삼아	諸제菩보薩삼摩 마訶하薩삼아
16ㄴ8	드사	드사		드사	드시
17ㄴ5	數승업스나	數승업스나		數승업스나	數수습스나
44ㄴ2	므스미 여러	므스미 여러		므스미 어러	므스미 어러
45ㄴ1	七칠寶봉돌	七칠寶봉돌		七칠寶봉돌	七칠寶보로
47ㄴ6	菩뽕提명法법이	菩뽕提명法법이		菩뽕提명法법이	菩보提테
69ㄴ2	應응호샤	應응호샤		應응호샤	應응호야
76ㄴ6	호오사	호오사		호오사	호온사
105ㄴ7	菩뽕薩삼이 아니 니		菩뽕薩삼이 아니 니	菩뽕薩삼이 아니 니	菩보薩삼   아니 라
112ㄴ8	大땡身신 아니라		大땡身신 아니라	大땡身신 아니라	大땡身신   니라
116ㄴ3	諸정法법相상에 걸여		諸정法법相상에 걸여	諸정法법相상에 걸여	諸제法법相상에 걸여
118ㄴ8	般뵈若양波 방羅 랑蜜밀法법을 修 습行행호야		般뵈若양波 방羅 랑蜜밀法법을 修 습行행호야	般뵈若양波 방羅 랑蜜밀法법을 修 습行행호야	般뵈若야波 방羅 랑蜜밀法법을 行 행호야
133ㄴ7	持땡經경혼 福복 이		持땡經경혼 福복 이	持땡經경혼 福복 이	持디經경혼 福복 덕덕
139ㄴ5	말 내는 그티라		말 내는 그티라	말 내는 그티리	말 내는 그티리
144ㄴ3	善선男남子중善 선女녀人인이 三 삼千천大땡千천 世세계개로		善선男남子중善 선女녀人인이 三 삼千천大땡千천 世세계개로	善선男남子중善 선女녀人인이 三 삼千천大땡千천 世세계개로	善선男남子중善 선女녀人인   이 삼千천大대千 천世세계개로
148ㄴ4	니르산		니르산	니르신	니르신

위의 도표는 원간본 계통인 불갑사본·석판본·일사문고본과 중간본인 안심사본을 대상으로, 필사본과 차이가 있는 글자들을 그 장차와 함께 제시한 것이다.<sup>36)</sup> 도표에서 정리한 내용을 통해, 다른 판본과의 차이는 필사 과정에서의 오자·탈자·첨자 등에 기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곧 필사본의 ‘도라’·‘數습스나’·‘應호야’·‘諸法相에 걸어’는 불갑사본 등의 ‘도로’·‘數업스나’·‘應호사’·‘諸法相에 걸여’를 잘못 쓴 것이다. 그리고 ‘菩提 | ’와 ‘般若波羅蜜法을 행호야’는, 다른 판본의 ‘菩提法이’와 ‘般若波羅蜜法을 修行호야’에서, 각각 ‘法’자와 ‘修’자가 빠진 것이다. 또한 ‘持經훈 福德 | ’·“善男子善女人 | 인 三千大千世界로”는 불갑사본 등의 해당 문장에 없던 ‘德’과 ‘이’가 새로 첨가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誤記로 인한 이와 같은 차이는, 필사본의 직접적인 대본이 된 판본과 필사시기를 추정하는 근거로도 활용될 수 있어 주목된다. 위 도표 ‘장차’ 항목의 밑줄 친 부분을 보면, 원간본 계통의 불갑사본과 석판본·일사문고본의 표기가 같은 반면, 필사본은 중간본인 안심사본의 표기와 같음을 알 수 있다. 안심사본의 ‘諸菩薩摩訶薩아’·‘므스미 여러’·‘말 내는 그티리’·‘니르신’ 등은, 각각 원간본의 ‘諸菩薩摩訶薩이’·‘므스미 여러’·‘말 내는 그티라’·‘니르산’의 오각에 해당하는데, 필사본은 이 안심사본의 표기를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이다.

물론 바로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필사본의 誤記 부분이 모두 안심사본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부분에서 필사본이 안심사본의 오각을 답습하고 있다는 점은 우연의 일치라기보다는 두 책의 친연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곧 1575년에 간행된 안심사본을, 보성선원 소장 필사본 『금강경언해』의 대본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볼 수 있다면 이 책의 필사연대는 1575년부터 견암사의 석가불상이 조성된 1647년 사이로 추정된다. 여기에, 임난 이전에 필사된 것이라는 송일기의 견해<sup>37)</sup>까지 고려하면,

36) 보성선원 소장 무량사본(하책)은 일사문고본과 차이가 없고, 김민영 소장의 무량사본(상책)은 필자가 조사할 수 없었으므로, 이 도표에 제시하지 않은 것이다.

37) 송일기(2012), 285.에서는 “이 『금강경』 백지묵서 사경은 보성선원의 삼존불이 늦어도 1647년에 조성되었으며, 복장전적 가운데 임난 이후 가장 늦은 시기에 간행된 불서로 1635년에

결국 필사본 『금강경언해』는 1575년 이후, 1592년 이전에 조성된 것이라 할 수 있다.

#### 4. 결론: 필사본 『금강경언해』의 ‘釋譜詳節/月印千江之曲’ 명기의 의미

지금까지 『금강경언해』의 편간 및 이본과, 신자료인 필사본 『금강경언해』의 특징적인 국면에 대해 살펴보았다. 필사본 『금강경언해』는 16세기 후반에 안심사본을 대본으로 하여, 『육조해서』·『후서』와 『금강경』의 본문 및 육조 解義의 언해문만을 필사한 것이다. 앞 장의 검토를 통해, 이 책은 이들 언해문 이외의 다른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수제와 권말제에는 ‘석보상절/ 월인천강지곡’·‘석보상절’의 서명이 명기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재방식의 이유 내지 의미를 해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금강경』 관련 언해본에 수록되어 있는 아래의 인용문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3) 임오년(1462) 9월 초9일에, 임금(세조)의 꿈에서 세종이 자신에게 『금강경』의 4보살·8금강의 이름의 뜻을 물으셨다. 또 (세조가) 꿈에서 도원군(의경세자)을 보고 말하기를, “도원군이 아닌가?” 하니, 도원군이 대답하기를, “접니다.” 하고 나와서, 세조를 안고 통곡하니, 세조도 또 매우 통곡하셨다. …(중략)… 아침에 중진이 세조에게 꿈 이야기를 하시기를, “꿈에 세종께서 이루신 다섯 불상과 여러 보살이 위요하고 서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시니, 임금께서 매우 감동하시어 오열하시고 말을 내지 못하시다가 오래 되어서야 말씀하시기를, “내가 할 말이 있습니다.” 하셨다. …(중략)… 임금께서 말씀하시기를, “追薦은 쌓일 것이 없어서 마음에 흰히 여기는 것입니다. 근일의 사리 분신이 그 뚜렷한 표시일 것이니, 조상과 그림으로 무엇을 써야 하겠습니까?” 중진이 말씀하시기를, “이미 의경태자를 위하여 만든 상이 있으니 근일에 나온 사리를 넣고 초상을 그리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임금께서 말씀하시기를, “좋습니다.

---

송광사에 개편된 『화엄경소』 1책 등 불과 7책만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으로 보아 임난 이전에 필사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서명에 ‘月印’과 ‘釋譜’를 병기하여 온연 중 세종대와 가까운 시기에 필사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으며, 묵서한 종이의 특성이 가로로 굵은 발문이 조선 전기 간경도감본 등 세조 연간에 간행된 불서의 지질에 보이는 특징과 흡사한 점으로 보아, 이 사경의 필사시기를 잠정적으로 임난 이전으로 추정하고자 한다.”라고 하였다.

나도 또 망자를 위하여 『금강경』을 크게 유통시키겠습니다.”<sup>38)</sup>

(4) 지난날 세종장헌대왕께서 일찍이 『금강경오가해』의 治父頌·宗鏡提綱·得通說誼 및 『증도가남명계송』을 국어로 번역하여 『석보상절』에 넣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문종대왕 및 세조대왕에게 함께 그것을 편찬하도록 명하고, (세종께서는) 친히 검독과 교정을 보셨다. 이 때 야보와 종경의 2解와 득통설의의 초고는 이미 완성되었으나 아직 교정은 보지 못했고, 『남명집』은 겨우 30여수만을 번역하여 체계를 갖추지 못했다. (이에) (세종의) 遺命으로 문종과 세조가 일을 마치려 했으나, 문종은 재위하신지 오래 되지 않아 돌아가시고 세조께서 이를 이으셨다. (세조께서) 유명을 받들어, 먼저 『월인석보』를 관목에 새겨 유통시키시고, 또 인쇄하여 널리 펼치셨다. 친히 중국에서 『증도가』의 언기 註 및 평덕 조정의 註와, 『금강경오가해』 및 여러 경전을 가지고 오셨다. 그러나 諸佛의 性宗과 여래의 心印이 심히 오묘하고 헤아리기 어려워 글로 설명하고 말로 비유할 수 없고, 또 유명을 위촉받은 바가 워낙 중대하여 대강 할 수도 없었다. 그러므로 먼저 『능엄경』과 『법화경』, 『금강경육조해』, 『원각경』, 『심경』, 『영가집』 등의 경전을 印刊하여 中外에 펼치시니, (세종대왕의) 遺意를 신령스럽게 이어 받지 아니함이 없었다. …(중략)… 무자년(1468) 가을 세조께서 질병이 있어 세연을 다하시고 八音이 갑자기 막히시니, 오 슬프다. 그 15년 후 임인년(1482)에 자성대왕대비전하께서 일찍이 삼으신 善因이 마음의 꽃을 열어 열성의 크신 소원을 추념하시며 맺지 못한 유업을 이어가기로 생각하셨다. 이에 先德 신 학조에게 『금강경』야보·종경화와 함허당 등등의 『설의』를 거둬 교감하라 명하시고, 지목하여 가로되 『금강경삼가해』를 이어 완성하라 하셨다. 임금께서 친히 번역하신 남명의 계송이 완성되자, 이에 담당관서에 명하여 인쇄하여 널리 퍼주시니 가이 없는 복과 이로움을 펼치셨다.<sup>39)</sup>

인용문 (3)은 앞에서 언급했던 『금강경언해』의 「번역광전사실」이고, (4)는 『금강경삼가해언해』에 수록된 한계희의 발문이다. 이들 인용문은 해당 언해본의 편

38) 「번역광전사실」, 『금강경언해』. 김성주 외(2006), 381-382.

39) 한계희, 『발』, 『금강경삼가해언해』. “昔世宗莊獻大王 嘗欲以國語翻譯金剛經五家解之治父頌·宗鏡提綱得通說誼及證道譯南明繼頌 以入釋譜。命文宗大王及世祖大王共撰之而親加督裁焉。于時 治父宗鏡二解得通說誼草藁已成 而未暇校定 南明纔譯三十餘首 俱未就緒。遺命文宗世祖終事 文宗享國日淺 世祖繼之 遵奉遺教 首先釋譜刊板流通及印施。親購得中朝 證道譯彥琪註 與宏德祖庭註 并金剛經五家解及諸經 第以諸佛性宗 如來心印 深妙難思不可識 識智知 文詮言諭 又以遺囑重大不可草草。故先譯楞嚴經法華經 六祖解金剛經圓覺經 心經永嘉集等經 印施中外 亦無非靈承遺意。…(중략)… 歲戊子秋 世祖有漏緣盡 八音遽遏 嗚呼痛哉 厥後十有五載 壬寅 恭惟慈聖大王大妃殿下 宿種善根開發心花 追念列聖之洪願 思繼遺緒之未終乃 命禪德臣學祖 重校金剛經治父宗鏡話涵虛堂得通說誼 目曰金剛經三家解 續成御譯南明既訖 命內需司 模印廣施 演福利於無窮。”

찬 내지 간행이 모두 세종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인용문 (3)은 『금강경언해』의 간행 이유로, 세종이 『금강경』의 ‘4보살’과 ‘8금강’의 의미를 물은 세조의 꿈 내용과, 중전이 꿈에서 세종이 만든 ‘다섯 불상’을 보았다는 사실을 들고 있다. ‘4보살’·‘8금강’은 연산조본과 안심사본에 수록된, 『請八金剛四菩薩』<sup>40)</sup>에서 열거하고 있는 네 보살과 여덟의 금강역사를 가리킨다. 이 ‘8금강·4보살’은 『금강경언해』에 실려 있지만, 『금강경』 및 육조 解義의 내용과 관계가 없는 것이다.<sup>41)</sup> 『請八金剛四菩薩』은 ‘금강경오가해’ 중의 하나인 『梁朝傅大士頌金剛經』에도 수록되어 있는데, 『금강경언해』의 편자가 이 책에서 옮긴 것으로 여겨진다.<sup>42)</sup>

그리고 중전이 꿈에서 보았다는 ‘다섯 불상’과 ‘여러 보살’은, 세종 30년(1448) 내불당 중건 시에, 세종의 명으로 조성된 三身如來像과 약사·미타불 및 보살·나한상을 가리킨다.<sup>43)</sup> 이상의 내용을 통해, 『번역광전사실』은 『금강경언해』의 간행이 세종과 관계가 있음을 서술하고 있지만, 그 이유로 제시된 ‘8금강·4보살’과 내불당의 ‘다섯 불상’은 『금강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인용문 (4)의 경우는, 『금강경삼가해언해』의 간행이 세종의 ‘遺命’ 내지 ‘遺意’임을 밝히고 있으며, 또한 이 책이 『석보상절』과 관계가 있음을 언급하고 있어 주목된다. 곧 인용문의 밑줄 친 부분이 그것으로, 세종이 『금강경삼가해』와 『남명집』을 번역하여 『석보상절』에 편입시키려 하였다는 것이다.<sup>44)</sup> 여기에서, 일단

40) 김성주 외(2006), 83. “奉請靑除災金剛 奉請辟毒金剛 奉請黃隨求金剛 奉請白淨水金剛 奉請赤聲金剛 奉請定除災金剛 奉請紫賢金剛 奉請大神金剛. 奉請金剛眷菩薩 奉請金剛索菩薩 奉請金剛愛菩薩 奉請金剛語菩薩.”

41) 이 ‘8금강·4보살’에 대해 孤山圓 법사는 일찍이 강직한 말로써 “기이한 일 좋아하는 사람들이 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송찬우, 『뜻으로 읽는 금강경』 (솔바람, 2003), 21.

42) 『梁朝傅大士頌金剛經』 (『大正新修大藏經』 제85책, 1-3)의 앞부분에는 이 『請八金剛四菩薩』뿐만 아니라, 『금강경언해』의 경문 앞에 실려 있는 『金剛經啓語』·『淨口業眞言』·『安土地眞言』·『普供養眞言』·『發願文』·『云何梵』·『開經偈』 등이 모두 수록되어 있다.

43) 金守溫, 『舍利靈應記』. “初太祖康獻大王 以黃金鑄三身如來 未就而賓天. 至是 上命行僉內侍府事 臣韓洪 同判內侍府事 臣田昞堅 行司直 臣金南洽 行副司直 臣姜升 左副承直 臣崔滄 行內侍府謁者 臣金潔 率巧冶 踵成遺制 兼造藥師彌陀及菩薩羅漢像. 塔·臨瀛大君臣璆領之.”

44) 『금강경삼가해언해』에 한계희의 발문과 함께 실려 있는 강희맹의 발문에서도 이러한 사실

필사본 『금강경언해』의 권수제 및 권말제에 ‘석보상절’이 명기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추정할 수 있다.

필사본의 필사자는 비록 실현은 되지 않았지만 세종의 이와 같은 시도가 있었음을 나타내기 위해, 『금강경삼가해』와 서명이 같은 『금강경언해』에 ‘석보상절’의 이름을 기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추정은 그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하겠는데, 앞의 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금강경언해』와 『금강경삼가해언해』는 서명이 같을 뿐, 그 체제 및 내용이 전혀 다른 별개의 문헌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인용문의 밑줄 친 부분은 오히려, 『금강경언해』가 이미 『석보상절』에 수록되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읽힐 수 있다. 위의 (4)를 보면, 『금강경삼가해』의 교정 및 간행이 지연된 이유 중의 하나로, 이 책의 심오한 내용을 들고 있다. 교정이 지체될 만큼 심오한 내용의 『금강경삼가해언해』를 세종이 『석보상절』에 편입시키려 했다는 점은, 이 책보다 쉬운 내용의 『금강경』 관련 해설서가 이미 『석보상절』에 수록되었다는 전제 아래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필자가 인용문 (4)를 근거로, 『금강경』의 『석보상절』 수록 가능성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필사본 『금강경언해』에 명기된 ‘석보상절’은 『석보상절』보다는 『월인석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석보상절』은 세조가 수양대군 시절에 세종의 명으로 편찬한 석가의 일대기이고, 『월인천강지곡』은 『석보상절』을 보고 세종이 지은 장편의 시가이며, 『월인석보』는 세조가 이 두 책을 합편·증보하여 1459년(세조5)에 간행한 것이다. 필사본 『금강경언해』는 ‘석보상절’ 외에 ‘석보상절/ 월인천강지곡’을 명기하고 있으므로, ‘석보상절’은 두 책이 합편된 『월인석보』일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월인석보』의 권두서명이 ‘월인천강지곡/ 석보상절’이라는 점과, 필사본에 ‘월인천강지곡’보다 ‘석보상절’의 출현 빈도가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금강경』

---

을 강조하고 있다. “歲在丙寅春 昭憲王后奄棄宮壺 世宗大王悲悼哀傷 以爲饒益冥禧無上轉經. 乃於萬機之暇 留神釋典. 爾時 文宗在東宮 世祖在潛邸 暨諸宗英呢承 世宗慈訓. 紬繹諸經 以爲金剛經諸解中 治父宗鏡直是了義頓教法文 南明繼頌禪家活語 俱是離文字底說話 單提直指之妙舍此 而無以他求. 歲戊辰春 又得涵虛堂信如所撰治父宗鏡話說 誼 上大加稱賞 命世祖繅譯 親加督裁. 又親譯南明三十餘篇 世祖畢譯 將入釋譜之末.”

을 노래한 「월인천강지곡」이 없거나 그 비중이 매우 적었을 것이라 여겨진다.

다시 말해서, 필사본 『금강경언해』의 ‘석보상절/ 월인천강지곡’·‘석보상절’ 명기는, 『금강경』 본문 또는 『금강경해의』의 일부 내지 전체가 『월인석보』에 수록된 사실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곧 『금강경언해』의 필사자는 안심사본을 저본으로 하면서도, 이 『금강경』이 『월인석보』에 수록되어 있음을 나타내기 위해, 권수제와 권말제에 ‘금강경’과 함께 『월인석보』의 권두서명을 기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추정은 사실, 그 근거가 확실하지 않다. 다만, 이러한 추정 외에는 다른 이유를 찾기가 어렵다고 하겠는데, 필자의 추정에 대한 방증자료로 목판본 『지장경언해』를 들 수 있다. 이 『지장경언해』는 1762년(영조 38)에 두류산 견성암에서 판각한 것으로, 권수제가 ‘지장보살본원경언회권상/ 월린천강지곡제이십일 / 석보상제이십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월인석보』 권21은 『지장경』과 『석가보』 釋迦母摩訶摩耶夫人記 제16·優填王造釋迦栴檀像記 제23·波斯匿王造釋迦金像記 제24, 그리고 『大方便佛報恩經』 권3 論議品 제5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sup>45)</sup> 이 책은 『지장경』만을 수록하고 있음에도, 『월인석보』의 권두서명을 기입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지장경언해』는 기재된 권수제 대로 『월인석보』 권21의 「월인천강지곡」과 「석보상절」을 옮기고 있다. 그렇지만 『지장경』의 언해본은 이 책 이전에 없었고, 『월인석보』에 없던 忉利天宮神通品 제1~囑累人天品 제13의 품명을 본문에 명시하고 있으며, 「월인천강지곡」이 曲次 없이 수록되어 「석보상절」과 구별이 안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필사본 『금강경언해』의 예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금강경』은 『월인석보』에 수록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금강경』의 내용적 특징으로는 ‘무주상보시’의 강조를 들 수 있는데, 『월인석보』 또한 전권에 걸쳐 보시와 관련된 본생담이 수록되어 있는 특징을 보인다.<sup>46)</sup> 특히 권20~23에는 효행담과 더불어 보시 관련 이야기가 집중되어 있는 것이

45) 김기중, 「월인천강지곡의 저경과 문학적 성격」 (서울: 보고사, 2010), 97.

46) 김기중, “15세기 불전언해의 시대적 맥락과 그 성격,” 『한국어문학연구』 제58집(2012. 2), 117.

다.47) 그러므로 『금강경』의 전체가 아니더라도 최소한 범회인유분 제1부터 무주 상보시를 처음 설하고 있는 묘행무주분 제4까지의 내용은 『월인석보』에 수록되었을 개연성이 있다고 하겠다.

현재 『월인석보』는 총 25권 중 권3·5·6·16·24를 제외한 20권이 전하고 있다. 그러므로 필자의 추정대로 『금강경』이 『월인석보』에 수록된 것이라면 이들 권차 중의 한 권의 일부에 해당할 것이다. 그런데 『월인석보』의 현전본 중, 권22·23·25 등은 전체 장차에서 낙장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들 권차의 결락된 부분에 수록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들 가운데 권23은 초간본을 포함한 3종의 이본이 모두 결락된 채로 전하고 있다.48) 그리고 16세기 중엽의 복각본인 권22는, 제1장부터 제72장까지의 장차가 결락 없이 전하고 있지만, 권말서명 아래에 ‘總百九張’이라는 附記가 있다는 점에서, 초간본의 36장을 떼어내고 제37장을 제1장으로 하여 간행한 것임을 알 수 있다.49)

위에서 언급한 『월인석보』의 권차 중, 권3·5·6은 이들 권차의 내용에 해당하는 「월인천강지곡」이 단행본 『월인천강지곡(상)』에 실려 있다는 점에서 『금강경』이 수록되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50) 그리고 권16은 이 권차를 포함한 권11~19의 底經이 『법화경』이고, 권24는 현전 『석보상절』 권23의 내용에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51) 역시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금강경』이 수록되었을

47) 김기종(2010), 230-247.

48) 현재 『월인석보』 권23은 삼성출판박물관 소장의 초간본과, 영광 불갑사 및 연세대 도서관 소장의 복각본이 전하고 있다. 초간본은 앞의 15장과 제107장 이하가 낙장되었고, 불갑사 소장본은 제1장 뒷면이 결락되고 제98장으로 끝나고 있으며, 연세대 소장본은 제63장 뒷면~98장의 36장 반엽만 남아 있다. 김기종(2010), 18-20.

49) 안병희, “『월인석보』의 편간과 이본,” 『진단학보』 제75집(1993), 192.

50) 현재 전하지 않는 『월인석보』 권3은 『석보상절』 권3에 대응될 것으로 여겨지는데, 『석보상절』 권3은 석가의 유아 시절부터 결혼까지의 성장 과정과, 출가하여 6년 고행을 마친 뒤, 정각을 얻기 위해 필바라수 아래에 앉기까지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 『월인천강지곡』으로는 其33~66에 해당한다. 권5·6의 경우는 「월인천강지곡」 其95~175에 해당하는 것으로, 석가가 성불 이후 석가족과 外道들을 교화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51) 참고로, 『석보상절』 권23은 석존이 열반 직전에 행한 설법과, 반열반과 다비식을 걸쳐 수습된 사리를 나누고 사리탑을 조성하기까지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 『대반열반경후분』이 저경의 중심을 이루고 있고, 그 외에 『법원주립』과 『석가보』 釋迦雙樹般涅槃記 제27·釋

가능성이 있는 권차는 권22·23·25 중의 하나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더 이상의 추정은 지나친 억측에 불과할 것이므로, 여기에서 언급을 멈추기로 한다.

이상, 『금강경삼가해 발문』·『지장경언해』·『월인석보』 등의 관련 사항을 중심으로, 필사본 『금강경언해』에 명기된 ‘석보상절/ 월인천강지곡’·‘석보상절’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최근에 발견된 필사본 『금강경언해』의 권수제 및 권말제는, 현재 전하지 않는 『월인석보』에 『금강경』이 수록되어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수록 여부의 진위와 상관없이 不傳 『월인석보』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켰다는 점만으로도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보성선원 소장 필사본 『금강경언해』는, 16세기 후반의 언어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과 필사본 언해불경의 유통을 보여주는 첫 사례라는 점을, 그 가치 및 의의로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강순애. “『월인석보』의 저본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제22집(2001. 12), 63-96.
- 강호선. “조선 태조 4년 국행수륙제 실행과 그 의미.” 『한국문화』 제62집(2013. 6). 199-232.
- 김기중. 『월인천강지곡의 저경과 문학적 성격』. 서울: 보고사, 2010.
- 김기중. “15세기 불전언해의 시대적 맥락과 그 성격.” 『한국어문학연구』 제58집(2012. 2). 96-118.
- 김무봉. “『금강경언해』의 번역에 관련된 몇 가지 문제.” 『한국사상과 문화』 제40집(2007. 12). 268-294.

---

迦八國分舍利記 제28·釋迦天上龍宮舍利寶塔記 제29·釋迦龍宮佛髻塔記 제30 등이 편입되어 있다. 낙장된 제1·2장을 제외하고는, 삽화의 저경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 김기중(2010), 68.

- 김성주 외. 『금강경언해』. 서울: 신구문화사, 2006.
- 김영배. 『국어사자료연구』. 서울: 월인, 2000.
- 김영배. 『(역주) 금강경삼가해』 1.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06.
- 김영일. “『금강경』 구조에 대한 시론.” 『불교연구』 제30집(2009. 2). 122-148.
- 문명대. “대구 보성선원 봉안 견암사 玄旭派 석가삼존불상의 도상특징과 복장 연구.” 『강좌 미술사』 제35호(2010. 12). 373-424.
- 송일기. “보성선원 삼존불의 복장전적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3권 제4호(2012. 12). 271-294.
- 안병희. “초기 불경언해와 한글.” 『국어사자료연구』. 서울: 문학과 지성사, 1992. 50-65.
- 안병희. “『월인석보』의 편간과 이본.” 『진단학보』 제75집(1993). 183-195.
- 정승석 편저. 『고려대장경해제』 권1. 서울: 고려대장경연구소, 1998.
- 정재영. “간경도감 초간본 『금강경(언해)』.” 송일기 편. 『영광 불갑사의 불교문헌』 1. 서울: 태학사, 2005. 178-192.
- 정재영, 김성주. “영광 불갑사 복장전적에 대한 국어학적 연구.” 『서지학보』 제35호 (2010. 6). 209-249.
- 최병현. “『월인석보』 편찬의 불교사적 의의.” 『진단학보』 제75집(1993). 219-225.